삶을 위한 성경 강해: 요한계시록(6)

이우제 (백석대학교 교수)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대학원 원장이자 실천신학(설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총신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하고 미국 칼빈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Th. M)과 남아공 스텔런보쉬 대학교에서 신학박사 (Th.D)학위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음성을 밝히는 설교를 꿈꾸는 설교학자이자 설교자이다. 저서는 「테마가 있는 설교」 (대서)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내러티브 설교 형식 계발」 (공저, 대서)가 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계 2:12-13)

십인십색이란 '열 사람이 있으면 열 가지 색깔이 있기 마련'이라는 뜻으로 사람마다 생김새, 기호, 취미, 생각들이 제각기 다름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각양각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내야 하는 자리와 환경이 모두 다르다.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와 그 교인들도 남다르게 특별한 삶의 현실에 처해 있다. 그들이 처한 특별한 현실 앞에서 힘듦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버가모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알아보자. 버가모는 로마제국 아시아 주의 행정수도이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황제에게 드리는 신전을 건설하여 바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우상숭배의 본거지 중에 바로 한 곳이었기에 사단의 권좌(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

고 있다. 그들이 당한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예가 바로 안디바의 순교이다.이는 버가모 교회가 극심한 박해의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 교회임을 알게 한다.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우리 개개인으로 대입해서 적용해 보자. 버가모 교회 같은 상황이 내가 직면한 현실일 수 있다. 그 때 우리는 "주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현실을 주시는 것입니까?"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들은 다들 행복하게 보이는데 나에게만 유독 힘겨운 인생의 길을 허락하시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주목할 것은 그런 교회와 신자를 향하여 13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아신다 하신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사실 아신다는 것은 비단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만 쓰신 표현이 아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후렴구로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 반복하여 등장한다 (2:2; 2:9; 2:13; 2:19; 3:1; 3:8; 3:15). 일곱 번이나 후렴구처럼 반복된다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한 메시지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무엇을 강조하려는 것인가? 주님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즉 주님의 계획 밖에서 우리의 인생사가 펼쳐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만큼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소상히 아시고 깊이 헤아리고 계시다는 뜻이다. 불꽃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신다는 것은 큰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한 황제 숭배의 도전으로 순교자들이 속출하는 박해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직면해 있었기에 더욱더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위로의 메시지이다.

우리가 어디서 사는지를 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어야

우리의 삶의 상황이 누구와 비교해 봐도 참 힘든 것일 수 있다. 우리의 현실만 생각하면,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참된 위로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신다는 점이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사실이다. 비록 어렵지만, 그 현실이 다름 아닌 '주님 안에서' 혹은 '주안에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흔히 "성경이 답이다"라고 하는데, 실상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한 물음에 모두 답해 주시지는 않는다. 대신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답을 허락해 준다. 만일 우리들이 "왜 저에게만 이렇게 (버가모 교회 같은)힘든 현실을 주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답을 주지 않을 것이다. 질문이 틀렸기 때문이다. 틀린 질문에는 성경은 침묵한다. 바른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누구이신가?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사는지를 아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친히 알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고통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

위대한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끝까지 녹록치 않은 도전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비결은 늘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는 음

성을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버가모 교회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음성은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안다'이다. 기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아시는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이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실족하고 말 것이다.

오늘도 주님은 힘들어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너의 고단함을 알고 있단다."

주님이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것으로 값진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야...

지금까지 위로가 중요하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값싼 위로가 되어서는 안된다. 초라한 삶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도 안 된다. 성경은 그저 값싼 위로의 교훈은 주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가 값진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값싼 위로는 그저 힘들고 곤고한 교회를 감싸 안고 칭찬만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강조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에 대한 교훈은 주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는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러나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힘들다고 결코 칭찬만 하시지 않으신다. 동시에 호된 책망도 하신다. 주님이 아시는 것으로 신자들이 자신들의 실패와 패배를 정당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늘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면서 '주님 아시지요'라는 푸념을 연발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를 허락하게 다루기를 원치 않으신다. 값싼 위로로만 우리를 기르신다면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길임을 잘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너희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안다'고 하신 주님이 이제 책망의 칼을 빼 드신다. 그들을 향한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신다. 그들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할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어찌 보면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님의 이미지가 서로 조화되기 보다는 충돌하는 듯 느껴진다. 버가모 교회가 어디서 사는지를 아시는 자상한 주님의 모습과 좌우의 날선 검으로 싸우시겠다는 주님의 모습이 이율배반적이다. 흔히 그렇게 버가모 교회를 향한 상황을 깊이 공감해 주신다면, 위로 일색의 메시지가 되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주님은 그들의 형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슴 절절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패에 대하여, 그들의 신앙적 궤도 이탈에 대하여 가혹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14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유혹을 받아 발람의 교훈을 좇은 것처럼, 발람과 같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고발하신다. 외부적인 황제 숭배를 견디어 냈지만, 긴장이 풀어지면서 내부 안에 숨어 들어온 우상숭배의 세력과 행음케 하는 세력 앞에서 넘어지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내입의 검'으로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을 추종하는 자들과 싸울 것이라고 하신다 (16절). 그 검은 12절에 나온 바로 그 날선 검이다. 그들을 아시는 주님은 매우 자애로운 모습이라면, 심판을 위하여 예리한 양날의 칼로 싸우시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도 준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사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너의 딱한 처지로 아는 것 때문에, 너의 죄까지 묵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핵심 메시지: 환경에 의해 피해를 입어도 피해자 되지는 마라

그 어떤 경우에도 핑계는 없다는 것이다. 환경이 어두워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이 어두워서, 아니 그것을 핑계 삼아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번은 무너질 수 있지만 결코 두 번 무너져서는 안 된다. 어느 사람의 말처럼, 사탄은 두 번의 승리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환경이 어두워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첫 번째 승리를 얻고, '피해자'로 서서 원한을 갚게 될 때 두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된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들의 통제 밖에 있는 경우가 많다. 뜻하지 않게 인생 흉년이 찾아오는 경우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2차 피해를 당하면 안 된다. 내가 피해자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 그것 때문에 한이 되어서 평생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이야기, 그분의 구속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 속에 연결된 생애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2차 피해로 가는 길을 차단할 수 있다. 피해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단속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안하고 싶은 것은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아픈 현실과 분투하며 싸우는 것이다. 주님의 위로를 붙잡고 나의 삶의 자리에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아름다운 꽃을 피어오르게 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날선 검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시다. 원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기 위해서 그 검을 드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매일 매일의 시간 속에서 칼로 들어 나오시는 주님을 초대해야 한다. 주님이 우리 편이 되시도록 우리가 그분 편에 서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도록 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의 세력과 니골라 당의 세력과 싸우시게 해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무와 공허와 싸우시게 해야 한다. 우리 안에 깊이 파인 상처와 피해의식과 싸우시게 해야 한다.그때 우리는 비로소 어두운 환경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값싼 위로'가 아닌 '값진 위로'를 받는 길이다. 주님의 위로는 우리의 수고와 분투 그리고 몸부림 없이도 주어진다. 우리가 그 분의 자녀이기에 위로는 언제나 넘친다. 그런데 그 위로로 수고와 분투의 삶으로 나아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값싼 위로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주님의 위로가 진정 값비싼 위로가 되려면, 주님이 우리가 형편을 아시는 것을 힘 삼아, 어두운 현실과 싸워 이겨 낼 때이다. 참으로 값진 위로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자. 이렇게 우리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흰 돌을 주시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이다. 새롭게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진정으로 알아주시겠다고 하신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실 때까지 분투하며 나아가자.